

연탄길과 인쇄

‘...민혜네는 국립묘지 앞에서 꽃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묘소 앞에는 허리가 활처럼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좌판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민혜는 그 할머니가 묘소 앞에 놓인 꽃들을 몰래 가져다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도 알고 있어? 가져다 팔 것이 따로 있지 그걸 가져다 팔면 어떡해. 아무래도 관리소에 말해야겠어.”

“오죽이나 살기 힘들면 죽은 사람들 앞에 놓인 꽃을 가져다 팔겠니. 그냥 모른 척 해라.” “아빠는... 모른 척 할게 따로 있지.”

... 날씨가 추워지면서 묘소를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 졌다. 묘소를 찾는 사람이 적으니 묘소에 놓여진 꽃도 적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여러 날 허탕을 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민혜는 묘소 반대편에 있는 시민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때 묘소에서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느릿느릿 걷고 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할머니 같았다. 당황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잠시 후 민혜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은 할머니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아빠였다.

몇 번을 다시 보아도 손에 꽃을 든 사람은 아빠였다. 잠시 후 아빠는 묘지 앞에 꽃을 내려놓고 주위를 살피며 걸어 나왔다. “아빠...” “어, 아침부터 여긴 웬 일이나?” “아빠, 근데... 왜 묘지 앞에 있던 꽃을 들고 있었어?” 민혜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응. 봤냐? 겨울이라 하도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묘지 앞에 꽃이 없어서 그런지, 할머니가 요 며칠째 헛걸음을 하시기에... 하도 안돼 보여서 아빠가 꽃을 좀 갖다 놓은 거야.” 겹연쩍게 웃고 있는 아빠에게 민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

꽃을 파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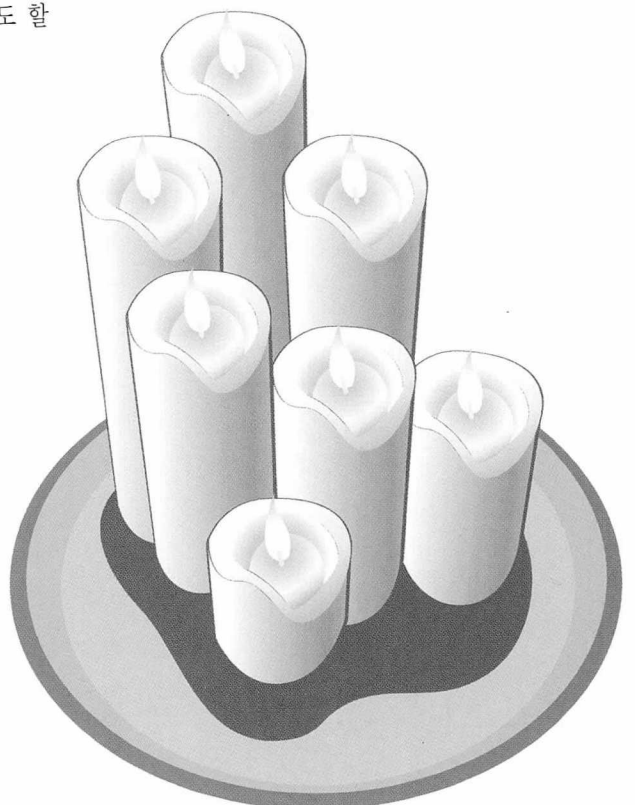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연탄길’에 나오는 일화 ‘꽃을 파는 할머니’ 중 일부다. 말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꽃집 주인과 아버지의 그런 참사랑을 보며 감동하는 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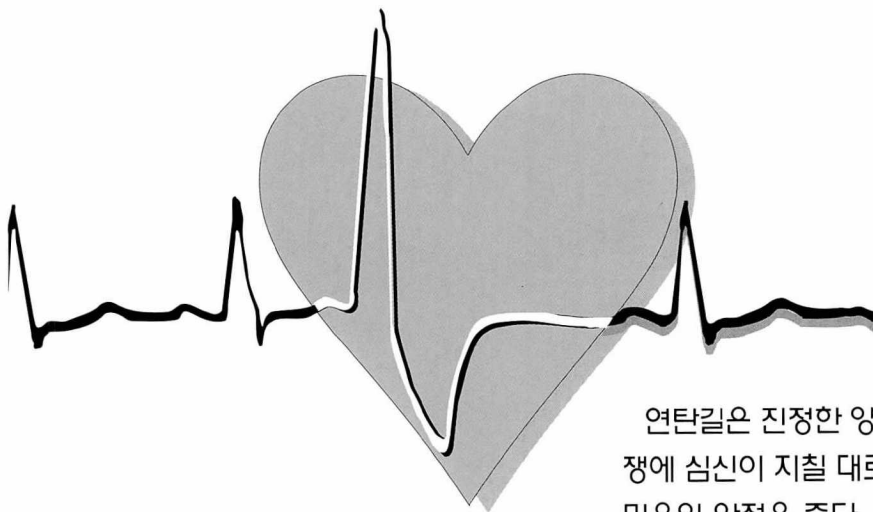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하고 애절한 삶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항상 무엇에 쫓기며 사는 오늘을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3권으로 된 이 책은 연말에 130만부 판매를 돌파, 밀리언셀러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0년 8월 1권이 나온 뒤 2년여 만에 입소문을 통해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 이철환(41)씨는 야학과 학원강





연탄길은 진정한 양보와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경쟁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이 책은 또다른 용기와 마음의 안정을 준다. 인쇄경기가 나빠질수록 경쟁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1% 나눔의 정신을 살린다면 인쇄업계가 좀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사를 하며 학생들을 통해 들은 수많은 사연들 중 극적인 것만을 모았으며 이를 취재하고 집필하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했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들이다. 그는 지금도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사로'란 봉사회를 이끌며 인세를 모아 복지단체 등을 후원한다. 책을 출판한 삼진기획도 저자의 뜻을 기려 판매수익금의 1%를 기부하고 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책의 저자를 나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길모퉁이엔 발치에서도 그를 금방 알아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상을 보는 따뜻한 마음과 깊은 눈빛이 놀랍기만 하다.” 시인 문정희씨의 서평처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책속 주인공들의 참 사랑에 눈물이 핑 돈다.

이대로 가면 공멸

우리는 지난해 서울인쇄정보조합 책자인쇄부 정기총회에서 의미있는 선물 하나씩을 받았다. 바로 위에 나오는 연탄길 3권이다. 책자인쇄부 이광재간사장이 왜 연탄길을 이날 참석한 회원과

내빈 모두에게 선물로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간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인쇄업계가 덩핑으로 인한 반목과 지나친 경쟁을 하루빨리 근절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그의 평소 이론을 '남을 배려하고 항상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연탄길의 메시지를 통해 인쇄인들에게 전달하고픈 마음에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필자도 연탄길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 느꼈다. 특히 인쇄인들에게 꼭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요즘 인쇄업계는 한마디로 살얼음판이다. 언제 얼음이 깨져 수렁으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존과 공영보다는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문화사업'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협력과 도움보다는 경쟁과 '네 탓'만 난무하다. 연탄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사실 인쇄업계가 물량 난과 기능인력 난 때문에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어 인쇄물이란면 무조건 수수부터 하고 봐야 하는 절박한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살아야 옆도 볼 수 있지...”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인식 또

한 모르는 인쇄인이 없다.

1% 나눔의 정신을

연탄길은 진정한 양보와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쟁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이 책은 또다른 용기와 마음의 안정을 준다.

인쇄인들도 연탄길의 주인공들처럼 남모르게 장학금도 내놓고 수십 년째 불우시설을 찾는 이도 많으며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 인쇄조합을 비롯한 단체에서도 매년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다. 수해 등 천재가 있을 때는 남보다 한발 앞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

계미년 양의 해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양은 참으로 착한 동물이다. 그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올해의 인쇄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경쟁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1%만이라도 나눔의 정신을 살린다면 인쇄업계가 좀더 훈훈해 지고 고질적 병폐인 덩핑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유청준 국장〉